

독자 끌어모으는 외국기업가 傳記物

'아이코카 열풍' 타고 번역출판 활발

모험에 찬 秘話...독자들에게 인기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은 셀러리맨들에게 대기업주의 꿈을 심어 주는 기업가 자서전과 전기들이 서점가에 속속 선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국내 기업가 전기물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번역물 특히 미국과 일본 기업가들의 자서전 및 전기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15, 6종에 이른다.

외국 기업가들의 전기물에 국내 출판사와 독자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쏠리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84년말부터 일어났던 리 아이아코카 열풍을 꼽을 수 있다.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클라이슬러社의 회장으로 부임해 과감한 경영쇄신으로 흑자를 이룩했던 아이아코카가 연일 국내의 언론의 화제로 떠오르자, 범우사·행림출판·경영문화사 세 출판사에서 「아이아코카 자서전」을 거의 동시에 출간, 치열한 판매 경쟁을 보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져, 지난해 시사영어社를 통해 「아이아코카 秘話」(피터 와이든 지음)와 「아이아코카 直言」(아이아코카 지음)이 출간된 바 있다.

아이아코카와 쌍벽을 이루는 자동차회사 경영의 귀재 존 Z. 데로리안의 자서전 「데로리안」(동국출판사)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작품. 이 책은,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자동차 기술자로 GM에 취직, 최연소 지배인과 중역을 거쳐 부사장에 올랐던 데로리안이 자동차업계의 치열한 파벌싸움에 휘말려 FBI에 체포되는 수난까지 겪으면서 결국에는 몰락하고가는 영욕의 과정을 추리소설처럼 박진감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데로리안」은 승자가 아닌 패자의 자서전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미국 최대 석유화학업체인 옥시덴탈社 회장으로, 90세의 나이에 동서진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막후 외교가로 더 큰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먼드 해머의 자서전 「아먼드 해머」(청림출판)도 번역돼 나와 있다. 해머는 「크렘린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본가」 「무역의 키신저」 「레닌과 등소평의 친구」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의 독특한 사업수단 뿐 아니라 제네바·레이카비크·워싱턴·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을 주선하고 아프칸사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의 활동상을 통해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여느 기업가 자서전과는

외국 기업가들의 자서전과 전기들이

서점가에 속속 등장하면서

일상에 지친 중산층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억만장자들의

인생역정이 소설보다 재미있다는 것이

독자들의 반응이나, 이 성공담을 통해

자기기만적 게으름으로부터

신선한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가는

순전히 읽는 이에게 달린 문제다.

다른 이 책만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아먼드 해머」와 함께 지난해 美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자서전 「트럼프」(김영사)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최대의 부동산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트럼프는, 맨하탄의 명소인 객실 1500개의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45층짜리 초호화 빌딩인 트럼프 타워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호화판 휴양지를 건설하면서 떠오른 미국 재계의 새로운 우상이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87년 말, 전직 대통령으로 추측되는 "아시아의 한 대통령이 뉴욕의 초호화 아파트인 트럼프 파크의 4개층을 구입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계기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거래의 기술'이라는 부제처럼, 트럼프는 자서전 속에서 자신의 사업스타일과 생활방식 및 부를 축적하게 된 과정 등을 의외로 소박한 목소리로 털어 놓고 있다.

돈버는 방법 이전의 '인생 교과서'

「트럼프」가 사생활보다는 돈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치중해 있다면, 최근 출간된 「호텔왕 힐튼 자서전」(삼성출판사)은 화려한 사업가이기 전에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기술'을 제시한다. 뉴멕시코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경영하는 호텔의 벨보이로 시작하여 세계 곳곳에 250개의 호텔을 세우기까지 힐튼의 삶을 지탱해왔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심과 아버지로부터 배운 일의 중요성이었음을 이 자서전은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힐튼」은 5, 60년대 은막의 스타였던 두번째 아내 자자 가보와의 결혼생활, 아들 닉 힐튼과 엘리자베드 테일러의 결혼과



아이아코카 자서전 불의 뒤를 이어 외국 기업가들의 자서전과 전기들의 번역 출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파경 등 가슴적인 읽을거리로도 재미가 있다.

일본 기업가로서는 소니社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의 자서전이 「소니 스토리」(시사영어사)와 「소니의 기적」(기린원)이란 두가지 제명으로 나와 있는데, 1946년 25세의 나이에 소니社의 창업멤버가 된 이래 일본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대미무역의 기반을 탄탄하게 닦았던 모리타의 탁월한 국제적 경영감각을 살펴 볼 수 있다.

기업가의 생애와 경영철학 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파헤친 전기물들도 눈에 띄는데, 「크라이슬러 신화」의 주인공 아이아코카를 「지킬박사와 하이드」로 규정된 피터 와이든의 「아이아코카 비화」가 특히 흥미롭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아코카의 자기중심적이며 무자비한 성격, 권위주의적인 면모와 비윤리적인 행동 등을 대단히 집요하게 들춰내고 있다.

그밖의 전기로는, 국민학교 4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23세에 사원이라고는 3명뿐인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여 13만5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게 된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쓰타고노스케의 전기 「마쓰시다」(邦光史郎 지음, 삼성출판사·동아서원)와 이시카와지마 중공업 및 도시바를 일으켜 세운 도모 도시오의 경영철학과 인생론을 그린 「21세기에 남길 遺言」(시무라 가이찌로 지음, 범우사)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경제신문」에 연재되었던 「나의 이력서」 중 마쓰시타, 혼다 등 일본의 대표적인 실업가 10인의 自傳을 모아 번역한 「도전에서 성취까지」(상·하, 경영자료사)도 나와 있다.

대체벌의 자서전 및 전기들이 평범한 중산층 독자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내 대형서점 중 가장 셀러리맨들의 발걸음이 잦은 '을지서적'(을지로 입구 내외빌딩 지하)에서 만난 회사원 이규철씨(34)는 '가십을 좋아하는 인간본능'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억만장자들의 화려한 사생활 뒤에 숨은 이야기, 수백만 달러가 오고 가는 대규모 사업에 얽힌 치열한 경쟁과 뒷거래가 소설보다 긴박감있고 재미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산층 독자들의 '드림 북'

이들 자서전과 전기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대개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폭넓은 비전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인간임을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러한 평범한 인간들의 성공담을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며, "나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산층의 꿈이 자기기만적인 몽상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데 비해, 성공한 기업가들의 꿈은 투철한 현실감과 일을 곧 놀이로 삼는 철저한 사업정신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큰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나 공상, 비현실적인 소원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 활기, 기대에 근거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방식이다."

바로 이것이 호텔제왕 콘라드 힐튼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오애리 기자